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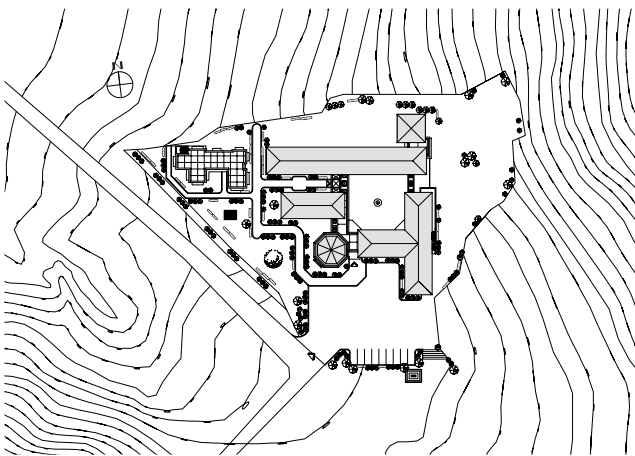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

# 평화가 함께

Peace Be With You

● 배치도

● 건축개요



0 5 10 15 20m

- 대지위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5번지 외
- 지역지구 관리지역
- 용도 종교집회장(수녀원)
- 대지면적 7,156㎡
- 건축면적 1,006.89㎡
- 연면적 982.91㎡
- 건폐율 14.07%
- 용적률 13.06%
-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 구조 벽돌 조적조
- 내부마감 내부용 본타일 + 고급벽지 + 사암(경당)
- 외부마감 적벽돌 + 시멘트기와
- 설계담당 김운찬, 정길수, 안창석, 이미란, 송명희
- 구조설계 (주) 동성 건축
- 설비설계 (주) 신일이앤씨
- 전기설계 한일전기설계감리사무소
- 시공사 (주) 한건종합건설
-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채수옥)
- 설계기간 2002. 05 ~ 2003. 05
- 공사기간 2003. 05 ~ 2004. 11

Location Okgye-ri 5, Gunam-myeon, Yeoncheon-gun,  
Gyeonggi-do, Korea

- Site area 7,156㎡
- Bldg. area 1,006.89㎡
- Gross floor area 982.91㎡
- Bldg. coverage ratio 14.07%
- Gross floor ratio 13.06%
- Structure Brick
- Bldg. Scale one story below ground, one story above ground
- Design period 2002. 05 ~ 2003. 05
- Construction period 2003. 05 ~ 2004. 11



- 
- 1. 동측회랑에서 바라본 중정내부
  - 2. 진입마당에서 바라본 전경
  - 3. 남서측에서 바라본 전경





## 평화의 터

'평화가 함께 수녀원'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평화의 터를 조성하려는 이천대회년 프로젝트(The Project of the Great Jubilee of Years of 2000)의 한 부분으로서 그 시발점이 되는 곳이다. 북녘 땅이 가까이에서 보이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이 곳은 단순히 수녀회의 기도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에 골골이 맺힌 애환을 기도로 승화시킬 성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 민족과 이 땅

에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원하는 '평화의 터' 성지개발 10년을 내다보며 계획하고 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는 1932년 평양 지목구에 창립된 한국의 첫 방인(邦人) 수녀회이다. 방인(邦人) 수녀회란 외국에서 진출한 수도회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창립된 수녀회를 말한다. 그래서 평양은 수녀회가 태동한 고향인 것이다. 평화의 터가 조성되고 있는 옥계리의 인성골은 청화산 서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랄까, 복측을 향해 열려진 골짜기의 지형을 갖고 있다.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이다.

## 평화가 함께 수녀원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900m 쯤 올라가면 수녀원이 위치한 곳에 도착한다. 그렇지만, 조금만 올라가면서부터 저 멀리 수녀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가는 길이 힘들게 느껴지진 않는다.

주위 나즈막한 산세와 어울리는 높이의 경사지붕을 가진 평화가 함께 수녀원은 이 곳에서 상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수녀님들의 공간과 사도직 활동에서 떠나온 수녀님들이 조용히 쉬면서 그간 수도생활을 돌아본 후 새로운 정신







과 마음 자세로 수도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그룹 피칭)을 주요기능으로 가지며, 사제실과 경당과 식당이 주요기능을 가진 공간과 조합되어 중정을 형성하는 형태의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측 주 출입구로 들어서면 좌측에 경당, 우측에 상주하는 수녀님들의 침실과 공동실 등이 위치한다. 경당은 팔각의 평면 형태를 가지며, 내부 벽체 마감은 자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암으로 되어 있고,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로 채워진 창에서 외부의 빛이 은은하게 유입된다. 홍송으로 마감된 팔각모임의 천장은



1. 외부에서 중정쪽으로 바라본 서숙회당  
2. 경당 및 사제관 전경  
3. 서숙회당

기도공간을 더욱 경건하게 만들어 준다. 경당과 조금 떨어져 북측에 동서로 사제관이 있으며 경당 앞 복도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주하는 수녀님들의 공간은 남측 앞마당을 반쯤 감싸고 있으며, 중정의 동측을 외부회랑과 함께 구성하여 북측 식당으로 연속적인 동선을 이끌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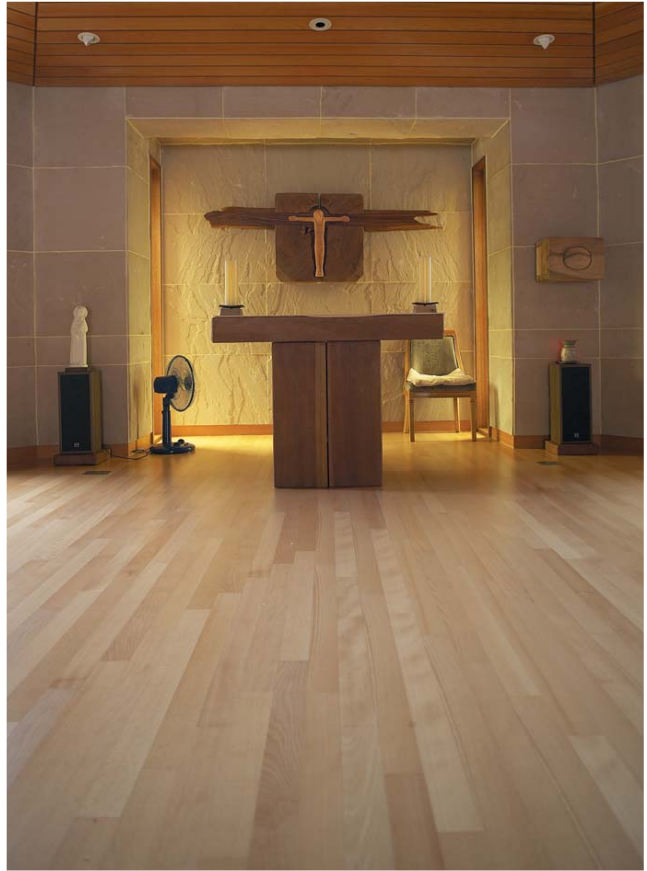
가장 북측에 자리한 그룹 피칭을 위한 곳은 수녀님들을 위한 침실과 공동실이 동서방향을 축으로 길게 놓여져 있으며, 그 축의 동측 끝에 식당이 있다. 길게 늘어진 복도를 생각하면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북측의 열린 복도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연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이를 무색하게 하고도 남을 듯하다.

구심적 역할의 중정은 동측과 서측의 회랑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내부적으로 닫힌 듯하나 외부로는 열려져 있는 자연을 수용하는 공간을 이루고 있다

적벽돌의 벽체에 반듯한 직사각형의 창문을 반복하여 간결하게 표현된 외부는 여기를 찾는 이에게 안정된 마음을 갖게 한다. 벽에서 나온 나즈막한 지붕의 처마는 주변의 산세와 조화하여 자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듯한 건축물을 만들어 낸다. 노출콘크리트의 처마 밑면에는 리브를 첨가하여 전통 건축의 이미지를 불러오게 했다. 그리고 물먹은 듯한 기와는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자연과 어우러진다.

홀로 자연 속에 숨어 있던 인성골이 사람의 손이 닿아 더 좋은 터로 승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것이다. 이런 정성과 노력이 담겨져 있기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연과 사람과 수녀원이 어우러져 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빌어 본다.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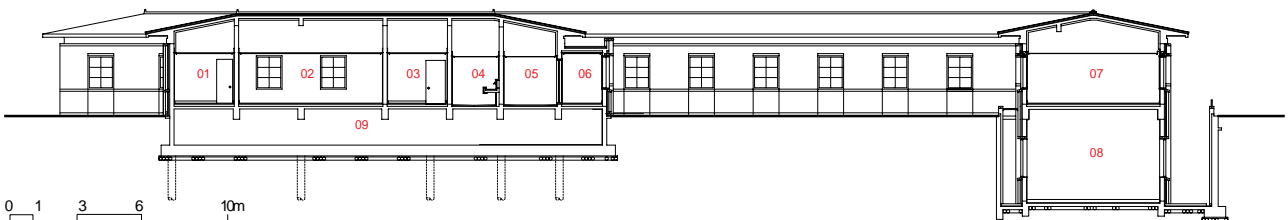




- 01\_ 사제침실
- 02\_ 거실/간이주방
- 03\_ 객실
- 04\_ 세탁실
- 05\_ 화장실
- 06\_ 복도
- 07\_ 식당/주방
- 08\_ 기계실
- 09\_ PIT
- 10\_ 수녀침실
- 11\_ 욕실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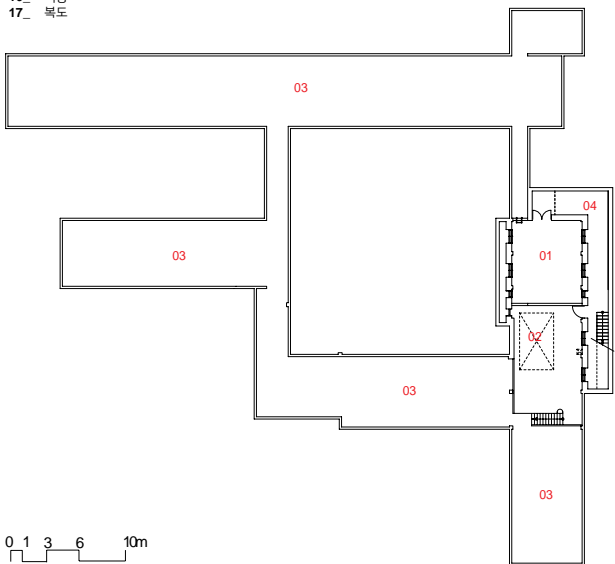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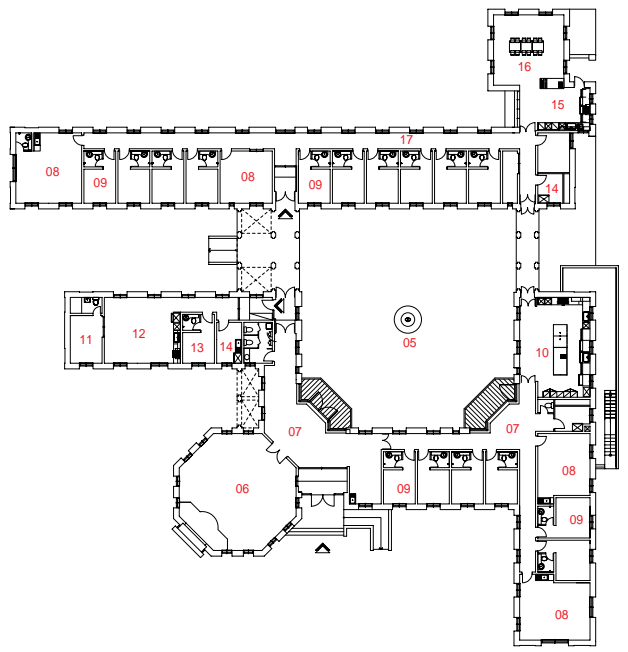
1	3	4
2		

1. 서쪽회랑  
2. 경당 앞 홀 내부  
3. 경당 제단  
4. 경당 내부

- 01\_ 기계실
- 02\_ 불탱크설치
- 03\_ PIT
- 04\_ Sunken
- 05\_ 중정
- 06\_ 경당
- 07\_ 홀
- 08\_ 공동실
- 09\_ 수녀침실
- 10\_ 식당/주방
- 11\_ 사제침실
- 12\_ 거실/간이주방
- 13\_ 객실
- 14\_ 세탁실
- 15\_ 주방
- 16\_ 식당
- 17\_ 복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